

고은 불교대학 소설



이속해였으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바로 이런 점으로도 무욕도의 수행은 바람세상과 철저히 격리될 수 있었고 그 절만의 제한된 세상에 갇혀서 사는 일이 가능하였다. 그래서 지난날 불어는 한두더러 상에서만 사는 단조로운 때문에 "이루네도 담을 쌓을 데가 없지만 이 도량은 천길의 담이 쌓인 감옥과 다를 바 없소"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가 지은 '불해고도'라는 시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감

남쪽에서 물러가는 파도와 바위에 의해서 끈질 속력을 내고 있었다.

어린 행자 우석과 만우들은 그들의 배가 한 점으로 보이다가 이윽고 그 침도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선착장 위의 촛대바위 위에 올라가서 오래오래 쳐다보고 있었다.

만우가 말하였다.
"나도 떠나고 싶어."
"무슨 소리아?"
"공부라는 것은 한 군데 처박히면 안될

"저것봐, 저건 상수의 떼가 아닌가"
"그러면 그렇지... 이 바다 어디에 보타락가섬이 떠 있단 말인가"

죽이 바다라고 묘사하면서 그 자신은 그런 감옥에 갇힌 무기수라고 묘사한 것도 섬에서의 삶에 입사라 어디로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없기 때문이었다.

시절은 백성들이 타전을 버리고 떠나는 일 못지 않게 상수(僧尼)들까지도 여기저기 떠돌아야 하는 것이었다. 절의 재산까지도 탐학의 대상이어서 어쩔때가 큰 재가 들어온 다음날은 어김없이 그 고을 아전 불이가 나타나 재를 지낸 뒤의 곡식과 열전구러미를 약 끌어가는 것이었다.

그런 형편인지라 열불도 저자거리와 마을을 떠돌며 탁발하는 일로 되었고 그런 가운데 일부 승려들은 죄를 내어 짐을 쳐주는 일도 생겨났다.

무욕도의 사람들이 그런대로 이같은 바람세상의 고초와 달리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여간 다양한 노릇이 아니었다.

것 같아."

"너 무슨 소리아?"

"저렇게 떠나서 새로운 곳 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그 공부나 나와 세상을 위해서 이로운 것이 될 것이지."

"떠나고 싶거든 너나 혼자 떠나거라. 내가 네 헛된 소리를 일러버치지는 않겠다. 아 이 어리석은 놈아."

이렇듯이 친구를 꾸짖는 우석도 그가 떠나온 집사람이 날 때도 있고 섬의 파도소리가 지겨울 때도 없지 않았다.

박월길성 승풍이의 떼배는 충청도 연안을 잘 건너갔다. 경기도 남부연안의 고도 작은 섬들로 부터 될 수 있는 한 거리를 두었다.

그런 섬은 오래 바다 위를 주름잡는 도적들의 소굴이기 십상이거나 도적들을 소탕하기 위한 관군이 상륙해 있거나 하기 때문에 오직 대성장포구로 돌아가고자

박월길성 승풍이의 행방

이제까지 서해 연안의 육지와 무욕도 사이를 건너는 때에는 두 겹으로 된 참나무와 소나무로 된 것이었다.

무욕도 일대의 바다는 매우 빠르고 거친 물살 때문에 작은 배보다 차라리 배의 평면이 안잡히었다. 인당(인당) 배를 띄워서 타고 다니 이런 그것은 무욕도의 소중한 교통수단이 되었다.

인당도나 서산 일대의 짙은 나무들은 한양 궁에서 황장목(黃棠木)으로 지정해서 누구 하나 건드릴 수 없는 금기의 대상이었으므로 그밖의 산에서 배를 만들만한 재목을 구하는 것은 원만한 부자가 아니고서는 엄두도 낼 수 없었다.

더구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여기저기서 관가의 토목질과 공주림에 견디지 못한 배들이 살아온 곳을 떠나 거지로 떠돌다가 서로 뚫을 맞춰 초석이 되는 일이 많았으므로 그를 초석은 바닷가 포구의 배라고 그냥 두지 않고 연안을 떠돌며 강도행각을 벌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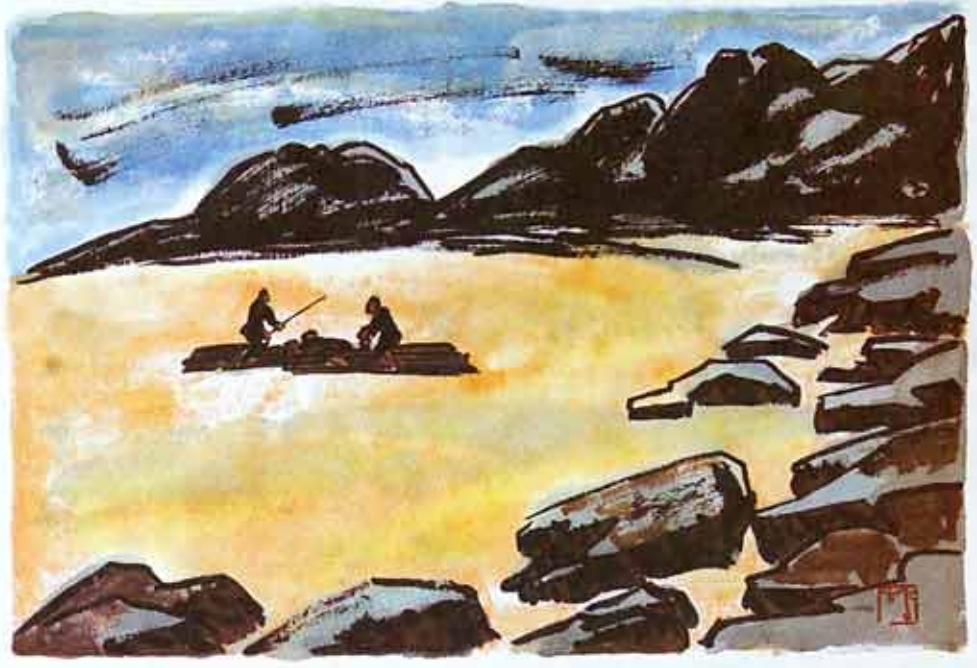
그러므로 배 한 척의 값은 두 쪽거리 법산이 큰 마을 백호의 집값을 다 합해도 비쌌다.

이런 때여서 나라의 수군(水軍)에도 전선(戰船)이나 순시선 따위로 모자라 세곡선(稅務船)을 일정한 기간 징발해 쓰는 처지가 되었다.

무욕도의 떼배는 이런 사실의 지혜로 생겨난 배이었다.

하지만 떼배가 떠날 때는 반드시 날씨가 바다 조류의 상황을 알아야야 하였다. 그럴 뿐 아니라 인당배를 띄울 때를 저어가는 요령에 익숙해야 하는 것이었다.

가끔 대외 같은 사람은 워낙 바다 위에서 배가 끊은 사람이라 배 타기에도 바로



"이 바다 용왕님께서 언제 뱃승들을 편하게 해주신 적이 있었든가. 별 것이 아니야."

하지만 파도가 떼배 위로 사납게 덮칠 만큼 사나워지고 있었다.

박월이 연방 "축대! 축대!" 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몸을 움추렸다. 박월뿐 아니라 승풍이도 벌써 물벼락을 맞은 허반신이 젖어서 으으으해지는 것이었다.

바다는 차츰 그 동작이 활발해졌다. 벌써 파도 고랑이 석자나 파이며 파도 끝자락은 예리한 모서리가 처솟아 산산히 부서지고 있었다.

떼배도 그런 파도에 때를러지다가 파도에 파를타다가 하였다. 단단히 붙어있으면 물결과 생식용의 삶을 담은 용기를 길성

그런 갑작스러운 비바람 속에 파물하게 된 그들의 떼배는 떼배 위의 작은 움막 속에서 맛줄을 깨어 각자의 몸을 때어 때어 고정시켜야 하였다.

누구 하나 함부로 입을 열지 않게 되었고 흥백 짙은채 내달려오는 파도 아가리 하나하나에 맞아야 하는 시간이 계속되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다. 다행히 세사란 중의 누구도 그런 시간을 잘 견디어냈다. "저것 봐" 라고 승풍이가 오래만에 입을 열었다.

다른 두 사람도 승풍이가 턱으로 가리킨 쪽으로 이번에는 또 무엇이나는듯이 겁먹은 채 고개를 돌려보았다. 그들의 위치에서 서남쪽에 해당하는 저쪽에 작은 떼배 하나가 파도 위에서 장난치듯 떠

아에 두 눈발 따위도 파먹었는지 움막과여 있었다.

길성이 눈을 지긋이 감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러면 그렇지... 이 바다 어디에 보타락가섬이 떠 있단 말인가... 이 바다 어디에 관세음보살이 기다리고 있단 말인가. 이렇게 억센 비바람속에서 목숨 하나 부지할 수 없을 따름 아닌가..."

그런 길성이를 알거든 파도가 때려 쓰러뜨렸다. 그는 쓰러지면서 머리 부분을 때 바닥에 맨 밧줄이 붙었다. 그는 떼배의 나무와 나무 사이를 엮어낸 힘줄들이 그 자신을 지탱하고 있었다.

하지만 더이상 파도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가 떼배 위에서 밀려나가 파도와 함께 저쪽으로 떠내려갔다.

파도를 이기지 못해 떼배가 해체되었다... 길성은 자취를 보이지 않았다

그런 곳과 갈래 어울리지 못한 박월길성 승풍이는 세 사람만으로도 버거워 하는 떼배를 탔는데 거기에다 생식의 양식한 말과 마실 물 한 통까지 실었으니 바다 위의 안전이 걱정스러울 지경이었다.

"떠나는 것이야 말할 게없이 없으나... 아무래도 마음을 놓을 수 없소"라고 인당이 우녀에게 말하였다. 우녀도 아무런 대꾸가 없어도 인당과 같은 생각이었다.

대해가 그런 걱정까지 보태어줄 것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뱃승에게는 바다가 이승이고 저승 아님나'라고 통명스럽게 떠난 사람에게 정을 때어버렸다.

바람이 술을 잃어났다. 암암한 파도들이 서로 밀리고 부딪히는 힘을 내고 있었다. 세 사람이 탄 떼배는 북쪽으로 향했는데

하는 세사람에게는 피해야 할 곳들이었다. 그들의 떼배가 동쪽으로 딱딱도 대부분을 멀리 바라보이는 바다를 지나갈 때 그들의 뒤에서는 시꺼먼 구름이 거센 비를 뚫고 솟아오고 있었다.

박월의 몸에 갑자기 오싹 한기가 들었다.

"축대... 날씨가 왜 이리까" 하고 한번 진저리를 치다가 뒤를 돌아다본즉 하늘과 바다가 캄캄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길성이 승풍이한테 샅대를 밀었다.

"이제 네가 잘 살려라... 나는 한참 자야겠다." 그러자 박월이 버러 화를 냈다. "아 뒤를 보라. 코를 골게 생겼는가..." 길성이 받아냈다.

이가 마치 그것과 한몸이라도 되는 것처럼 붙잡고 있었다.

진작 물속에는 파도의 일부가 스며들어 갔다.

세사람은 땀이 하전하였다. 그런데도 파도 때문에 쓸 용기의 투쟁을 열 수 없었고 물속도 열 수 없었다.

"남재인걸."
"용왕님께서 곧 진정시키실 것이지."
"도무지 이렇게 시정해서야..." 라고 길성과 승풍이 주고받는 말에 박월이 화를 냈다.

"일 닦쳐..." 바다는 파도만이 사나워진 것이 아니었다. 하늘도 바다 못지 않게 비바람을 퍼붓기 시작하였다. 어떤 준비도 하지 못한채

랐다 가라앉았다 하는 것이었다.

"저건 상수의 떼가 아닌가?" 라고 박월이 눈을 크게 뜨고 말하였다.

그때였다. 그들의 떼배가 파도 덩어리속에 파묻혀버린 것이다.

다시 파도 위에 나온 그들은 더이상 저쪽의 작은 떼배를 눈여겨볼 수 없었는데 도 어느새 파도의 힘에 의해 그 작은 떼배는 그들의 떼배 바로 옆에 다가와 있었다.

그것은 틀림없는 상수의 떼배였다. 아직 상수의 시체를 고정시킨 그대로였으나 시체를 쌓은 무명천 따위는 나뒀나뒀 구멍이 나 있었고 그런 부분의 단단(單單)쪽이나 턱 언저리는 고기에 뜰어먹혀서 처참한 상태였다.

"길...성이...길...성이..." 라고 박월이 울음을 터뜨리며 불렀으나 길성은 벌써 그 자취를 보여주지 않았다.

박월은 분능적으로 그들의 옆에서 파도에 휩쓸리는 상수의 떼배를 쳐다보았다. 상수의 시체가 아예 뜰어져서 자취를 감춰버린 빈 떼배로 되어있었다.

박월과 승풍이가 함께 울음을 터뜨렸으나 그들이 탄 떼배의 나무를 엮은 부분이 파도의 힘을 이겨내지 못하고 질러나가자 떼배 자체가 해체되었다.

두 사람도 파도 위에 솟았다가 파도속으로 파묻혔다. 헤엄치는 일 따위는 아무런 용모가 없었고 엄두조차 낼 수 없었다.

그림·조향숙

"불가사의한 위신력이 발휘되어 현세에 사는 불자들의 만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고 있는"

"신비의 佛탑다라니에 대한 영험록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 신비의 佛塔다라니"

●佛탑다라니의 신비스러운 영험력!

- ① 본좌의 불탑다라니에서, 지체에서 약하고 다른 온기를 강하고 좋은 온기로 바꾸어 주는 강력한 氣(기)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 ② 이 氣(기)는 정신없는 불자들에게는 더욱 강력하게 작용하여 원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위신력을 발휘하며, 나쁜 운세를 좋은 운세로 변화시킵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불탑다라니를 통해 대면, 불속에 氣(기)의 흐름이 갑자기 강해짐을 직접 느낍니다. 이 氣(기)는 사람이든 초급대 초급대 2~3개월 정도 몸에 계속적으로 발생되면, 약했던 온기가 강해지고 그로인해 운세가 최상으로 바뀌어 모든 일이 저절로 막힘이 없이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 ③ 그리고 금강경 신탑다라니를 이용하여 인체의 영계적 파장되는 氣(기)의 흐름을 제크할 수 있고 그 강·약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인건의 길흉화복까지 판단할 수 있으며 조상영의 원도어부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판단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 ④ 현재 지기가 원하는 간절원 소원이 이루어질 것인지? •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 조상님의 영계가 천도되었는지? • 회고자라는 일이 성사될 것인지? • 무슨 일을 하면 될 것인지? • 대립집사에 할까할 것인지? • 어느대행에 들어갈 수 있는는지? • 현재 살고 있는 명운은 남은 것인지? • 언제까지 아를 것인지? 등 어떠한 일어난 금강경 신탑다라니에 적어 놓고 氣(氣) 테스트를 해보면 이루어질 것은 氣(기)가 나오고,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기 어려운 것은 氣(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서 기(氣)가 나오면 성공률(80~90%)은 거의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氣(기)가 나오지 않을 때는 2개월이상 佛탑다라니 氣(기)를 받으면 운세가 바뀌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회고됩니다.
- ⑤ 또한 우주공간에는 수없이 많은 은은한 영(靈)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이승에서 조금이라도 인연이 맺힌 인건의 몸체 밀리고, 관음과정을 일으켜 집안에 우환이 돌고되고 있는 일이 없고, 집안에 풍파를 일으킵니다. 이때 佛탑다라니를 집안에 소장하거나, 몸에 지니고 생활하거나 조상의 묘에 안장시키면, 이런 영들이 하나 둘씩 천도되기 시작하면서, 100일 정도 지나면 모든 영들이 천도되어 떠나거나 그때부터 집안이 조용해지고 회고자 하는 일이 저절로 풀려 나옵니다.
- ⑥ 佛탑다라니를 무찌름에 대한 전설된 기도와 병행치 않고 단순히 부처요만 경자하고 사용하는 분이나, 다종교인에게는 영험력이 일어나지 않고 氣(기)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佛탑다라니를 이용한 기(氣) 테스트 방법과 처방전이
스님들에게 수복된 스님용 책자와 영험록 책자를 무료로 함께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로고차원에서 인도들에게 부처님의 위신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길게 하는 데 일조하고, 해당국 제안을 위하여 그것을 퍼뜨리고 소명시켜 주는 방편으로 인도들에게 사용의 주시므로, 다스나 불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佛탑다라니를 사용하여 실제로 일어난 영험록 사례집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佛탑다라니 조상영의 사용방법 등이 같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책만 보셔도 충분히 참고가 되며 스님을 제자요봉은 가능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 경상남도, 대전, 충청, 보문포교원 (원장 각양)
상 담 문 의 조 계 중
부설: 불교바라밀 전강연구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한신상가 5동 5층)
전화: (051)864-3740

■ 기타지역 상담문의 및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자 신 청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35)34-9490, 39-1906,
야간 (0342)706-3060

사찰, 법당의 음향시설

-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
- 뛰어난 소리가 보장되는 ...
- 가장 경제적인 법당 음향시설 .

『음향연구가 김문화』가 직접 설계 제작한 DX-707 마이크는 현재 법당앰프의 소리를 완전히 바꾸어 드립니다.

- 법당전용 시스템 앰프
- 행사용 高出力 스피커
- 용도 : 각종행사, 대법당, 웅장한 음질을 자랑

법당의 필수품

특허품

법당 큰스님 전용으로 특별제작한 세계최고 성능의 마이크입니다.

사용해 본 모든 스님들께서 너무나 만족해 하시는 마이크입니다.

DX-707 스페셜 마이크
●공급가 : 200,000원

DX-707 분리형 스펠드 마이크
●공급가 : 180,000원

TM-108 염불전용 목걸이 마이크
●공급가 : 85,000원

●방생법회, 휴대앰프, 전기/밧데리 겸용

●고성능 무선 판-마이크

영등포전시판매장
영등포유동상가 지하1층 대열 18, 19호
☎ (02)671-9356~7

유코 전자
본사 : 158-091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226-7
☎ (02)697-9976, 605-3235 FAX : (02)695-9676